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15호 HYUNBULNEWS.COM 2025년 1월 15일(음력 12월 16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선명상 대중화 불사 올해도 '현재진행형'

"포교 없인 불교 미래 없다"
탁월한 포교 방안이 '선명상'
프로그램 · 콘텐츠 개발 박차
상반기 국제선명상대회 예정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이 올해도 '선명상 대중화'를 역점으로 포교·전법의 기틀 마련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선명상을 통해 현대인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 줄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불교의 위상 제고와 대중적 신뢰 확립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사진)은 1월 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불기 2569년 중앙종무기관·산하기관 종무평가 및 37대 핵심 주요 종책과제 이행 점검 워크숍'을 열고 한국불교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포교의 중요성과 그 기반이 되는 선명상 대중화의 확산을 재차 강조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중앙종무기관 종사자들에게 "올해도 '선명상 대중화'를 목표로 대중이 불교를 알고,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포교가 안 되면 불교는 살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최근 세계적으로 종교인구가 감소하면서 불교 인구도 더불어 줄고 있다. 1970~80년대만 2000만 불자에서 2000년대부터는 1000만 불자, 지금은 점점 더 줄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자 종단인 조계종이 모범이 돼 포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이끌어야 살림이 나아지고 출가자 문제 역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가자는 '포교'가 뒷받침될 때 자연히 늘어난다고 확신했다. 진우 스님은 "출가장려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고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그 기반이 포교다. 우선 불자가 많아야 출가자도 늘어난다"며 "현대인들에게 불교를 알리는 탁월한 포교 방법이 바로 '선명상'"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스님은 "불교 고유의 '선'을 간화선, 조사선이라 하면 대중이 그 용어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 전법으로 이어지지도 않는다"며 "인생을 사는 데 실제로 도움이 돼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알아본다. 선명상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올해는 그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선명상이 보급되면 전법도 자연히 이뤄진다"고 말한 진우 스님은 "교역직 스님들과 종무원들이 이 같은 기반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식을 정확히 가져 종무행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올해 조계종은 '선명상 대중화'를 통한 불교의 사회적 소통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에 나선다. 조계종 미래본부를 중심으로 연령, 수행의 기초·심화에 정도에 따른 선명상 프로그램과 선명상 콘텐츠가 활발히 개발 중이며, 지난해 12월 위촉된 51명의 선명상 지도법사 스님들을 바탕으로 전국 곳곳에 선명상 보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혼란스러운 국내외 상황에서 국민이 겪고 있는 각종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마음에 평화와 안정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총무원 재무부에서는 선명상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서울 안암동 '조계종 중앙 선명상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곳은 누구나 쉽게 선명상을 체험할 수 있는 수행·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2025 국제선명상대회' 개최로 한국불교 정체성을 함양하고 선명상인프라를 총결집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국내외 명상 전문가를 초청한 국제 컨퍼런스와 전국 권역별 주요사찰에서 선명상 세미나,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오늘 정진으로 성불 인연을" 고타마 싯다르타가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으로 거듭난 음력 12월 8일을 하루 앞둔 1월 6일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에는 성도재일 참선 수행정진 법석이 펼쳐졌다. 이날 정진에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봉은사 선원장 관도 스님, 교무국장 능원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지 원명 스님은 소참법문을 통해 "전생부터 이어져 온 1시간, 2시간의 공덕이 지금 100시간, 1000시간의 공덕의 바탕이 된다. 그렇기에 성도재일 정진은 불자로서 최상의 인연공덕을 쌓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성도재일 현장 기사 5면> 글 · 사진=김가령 기자

관음종, 개산조 기리는 '창종 60주년 법회' 연다

1월 8일 제62차 중앙종회서
창종 60주년 기념사업 의결
조사스님 '인생탈춤' 공연과
다례재·유품 공개 전시 예정
신년하례 법회 봉행도 함께

관음종이 창종 60주년을 맞아 개산조 태허 조사를 기리는 법회를 봉행한다.

관음종(총무원장 법명 스님)은 1월 8일 대전 계룡스파텔 화랑홀에서 제62차 중앙종회를 개최했다. 이날 종회에는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 중앙종회의장 혜산 스님, 부원장 도각 스님, 총무부장 홍경 스님 등 20여 명의 스님이 모여 성안됐다. 종회 안건으로는 △2024년도 결산 보고 △2025년도 예산 보고 및 사업계획 심의 △종단 사업 심의 의결 △기타 안건 의결이 상정·가결했다.

2025년도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관음종은 창종 60주년을 맞아 '창종 60주년 기념대법회'를 올해 10월 국립극장에서 봉행할 예정이다. 1부는 관음종 종정예하 영산 홍파 대종사의 법어와 법요가, 2부는 관음종 개산조인 태허 조사가 저술한 〈인생탈춤〉을 토대로 합창단의 음성공양이 선보여진다.

태허 조사의 유훈을 기리기 위한 다례재와 유품 전시도 이어진다. 태허 조사의 출가본사인 순천 선암사 부도에서 열반다례재를 봉행한다. 이어 관음종 총본산 낙산묘각사 앞마당에서 태허 조사의 유품을 전시해 대중들과 조사스님의 법향을 나눌 계획이다. 다가올 연등회에서도 '60주년 기념 장엄등'을 제작한다. 육바라밀을 상징하는 '6'등과 공사상을 의미하는 '0'등을 제작해 관음종 창종 60주년을 기념하고 대승불교 정신을 홍포한다.

또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포교를 확대한다. 한국 내 다문화 가정 증가에 따라 포교환경을 선도하기 위해 베트남불교와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이다. 이어 종정예하 영산 홍파 대종사의 베트남 방문 및 베트남 불교계와의 교류·MOU를 통해 다문화 포교 역량을 키운다.

사찰 활성화를 위한 신규 종법 제정 안건도 논의됐다. 4년제 대학 불교학과 또는 불교학 관련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에게 법사 자격을 부여하는 건이다. 다만 대상자는 종단의 법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앞서 총무원장 법명 스님은 인사말에서 "심기일전의 결의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종회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종회의원 스님들께서 머리를 맞대 주시라"고 전했다. 중앙종회의장 혜산 스님은 "올 한 해 중요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여법한 결과를 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무궁화홀에서 '관음종 신년 하례법회'가 봉행됐다. 이날 법회는 을사년 새해를 맞아 관음종 사부대중의 화합과 소통을 염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항공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된 법회는 △삼보례·반야심경 △종정 예하 신년법어 △총무원장 인사말 △사홍서원 △문화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관음종 종정예하 영산 홍파 대종사는 신년법어에서 "오늘 마련된 야외 법단에서 을사년 한해를 맞게 됐다. 올 한해는 밝고 힘찬 신심이 넘쳐나는 해가 되길 바란다"며 "마음이 맑으면 그곳이 바로 법당이고 부처님이 계신 곳이다. 용맹정진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설했다.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은 "어지러운 정치와 참사로 많은 생명을 잃어 행사를 축소해서 진행하게 됐다. 이번 법회가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면서 "더불어 이번 법회는 관음종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 오늘 모인 사부대중이 기쁘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김민재 기자, 유재상 충청지사장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 시공 전문기업입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 naver.com | 010-9446-1862,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